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30.(화)

## '26년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결과 5개 사업 1,786MW 선정

- 3,656MW 9개 사업 응찰, 5개 사업 1,786MW 선정 ... 경쟁률 2:1 첫 달성
- 상한가격 인하에도 고정식 상반기 1.2GW 이상 선정, 부유식 시장도 재개
- 선정사업은 하부구조물, 케이블, 설치·시공 등 주요 부문에서 국내 공급망 활용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3,656MW, 9개 사업이 응찰해 5개 사업, 1,786MW가 최종 선정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번 입찰은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도입된 지난 2022년 이후 최초로 응찰 규모가 선정 규모의 2:1을 넘는 경쟁률\*을 달성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사업개발·투자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 역대 경쟁률 현황 : (22) 1.3 : 1 → (23) 1.4 : 1 → (24) 1.6 : 1 → (25) 1.2 : 1 → (26.상) 2.0 : 1

고정식 해상풍력은 총 1,254MW가 선정되어 이는 전년도 연간 선정 규모 689MW를 크게 상회하는 등 상반기 입찰 물량만으로도 과거 연간 선정 물량에 준하는 보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 (22) 96MW → (23) 1,431MW → (24) 1,136MW → (25) 689MW → (26.상) 1,254MW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에서는 2개 사업이 응찰해 1개 사업(160MW)이 선정되었고, 일반 입찰 시장에서는 4개 응찰 사업 중 3개 사업(1,094MW)이 선정되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3개 사업이 응찰해 1개 사업(532MW)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낮은 참여 수요로 입찰이 열리지 않았던 부유식 시장이 재개됨으로써, 부유체 제작 등 전 공급망에 국내 기업 참여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상반기 입찰은 상한가격이 전년 대비 약 3% 낮아졌음에도 업계의 높은 응찰 참여로 고정식 해상풍력 부문에서 상반기에만 1.2GW 이상의 물량이 선정되면서 지난해 연간 선정 규모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를 통해 가격 인하와 보급 확대를 병행하면서도 국내 공급망 참여 또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공급망 차원에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설치·시공, 운영 등 주요 모든 부문에서 국내 공급망 참여계획을 제시했다. 터빈 또한 우리 기술력과 공급망이 잘 갖춰진 10MW급 터빈을 채택한 사업들은 모두 선정되었다. 아직까지 국내 독자기술이 없는 15MW급 터빈을 활용할 사업들은 모두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단순 조립·위탁생산이 아닌 기술이전 계획도 제출되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입찰 평가 시 산업경제효과, 공급망, 안보 등 비가격 지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가 사업자들의 국내 공급망 활용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국내 생산, 기술이전, 인증 획득, 공급망 참여 계획 등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낙찰 이후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터빈, 제어시스템 등 보안성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안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6월 30일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행안에는 향후 10년간(’26~’35년) 연도별 입찰 물량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급 및 기반시설(인프라)·공급망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끝.

※ 이번 해상풍력 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nrec.or.kr](http://www.knrec.or.kr))에서도 확인 가능  
(6월 30일 10시 게시)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기만 (044-201-7750)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임종원 (044-201-7753)

